



광주시립미술관은 미국 실험영화 거장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내년 2월28일까지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To All My Dear Friends)'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요나스 메카스작 '소호와의 작별 사중주' (왼쪽)와 백남준작 '시스틴 체플' (오른쪽)



美 실험영화 거장 '요나스 메카스'를 만나다

‘요나스 메카스+백남준: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展...광주시립미술관 제1, 2전시실

‘파괴 사중주’·‘소호와의 작별 사중주’ 등 상영
뉴욕서 함께 생활한 백남준과 우정·교류 조명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를 개척한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전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2월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1, 2전시실에서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To All My Dear Friends)’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리투아니아 문화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리투아니아 출신 미국인인 요나스 메카스는 시인이자 영화 비평가, 실험영화 감독으로 아방가르드 영화의 거장

으로 손꼽힌다. 미국 최초의 영화 평론지 ‘필름 칼처’(1954)를 창립하고, 최대 규모의 뉴욕 대안신문인 ‘빌리지 보이스’에 17년간 영화 칼럼을 기고해온 영화 평론가이기도 했다.

현재 그가 만든 ‘엔솔로지 필름 아카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아방가르드 영화의 아카이브 공간이자 필름 상영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요나스 메카스는 1960년대 전쟁 이후 혼란했던 시대 속에서도 일상 속 친구, 우정, 외로움들을 소재로 한 짧은 영상 조각들을 ‘영화 일기(필름 다이어리)’라는 그만의 새로운 방식의 영화 기법으로 장만해냈다. 이는 그의 주요 작품 세계가 됐고 현재 실험영화사에서 일기체 영화의 창시

자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그의 독자적인 영화 일기 속 동료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의 애정 어린 시선에 주목한다.

특히 뉴욕에서 함께 거주하며 같은 이민자 예술가로서 서로를 가까이 또는 멀리서 격려하고 응원한 백남준과 요나스 메카스의 우정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요나스 메카스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 일기(필름 다이어리) 형식의 영화 ‘월든’, ‘여행 서사시’를 비롯해 백남준과 요나스 메카스가 함께 출연하고 촬영한 ‘파괴 사중주’와 ‘소호와의 작별 사중주’ 등이 상영된다.

또한 여러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활동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앤디 워홀, 조지 마키우나스, 요코 오노 등을 촬영한 여러 개의 짧은 영상 및 사진으로 ‘플럭서스 친구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특별 코너로 백남준이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로 참가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시스틴 체플’이 전시된다. 해당 작품은 요나스 메카스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던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이미지가 투사되는 4채널 비디오 설치영상이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인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40여개의 프로젝트로 투사돼 서로 다른 크기의 중첩된 이미지와 이들이 만들어 낸 영상 패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비치면서 빛과 소리의 매혹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또한 요나스 메카스·백남준의 인터뷰 영상, 이 둘의 우정과 교류의 흔적들을 비롯해 요나스 메카스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도서·포스터·시 등 아카이브 자료 100여점도 소개돼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최명진기자

트랜스휴먼-원형에 대한 사유

기옥각의 캔버스상에서



삶의 공간과 자연, 끊임없이 유량과 정착을 반복하는 현대인들, 눈 덮인 히말라야산맥, 시리도록 투명한 남미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의 얼음, 열대우림 아마존의 밀림, 내 마음속 창을 통해 대자연 속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다양한 변곡점을 가진 플랫폼, 변화의 채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운 마음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겨울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아름다운 하늘, 눈부신 바다, 은하수, 우주 공간 속 미지의 어느 행성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눈이 내리고 내려 쌓이고 또 쌓여 겨울나무는 순백의 흰눈을 가득 안고 고향하는 고독한 수도승처럼 말없이 서 있다.

나에게 자연은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다. 이제

사람들은 유위에서 무위로, 도시에서 자연으로, 인간에서 자연으로, 체육에서 비육으로, 소유에서 존재로, 복잡성에서 단순성으로 사유의 축을 옮겨야 한다.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트랜스휴먼을 통해 존재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화해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초연결사회 속 정보와 아이디어의 기하급수적인 전파와 속도,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의 폭발적 상호 작용,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초월성을 지닌 21C 미래의 새로운 인간 트랜스휴먼-네오노마드를 통해 미래와 변화의 시대정신을 관통하고 아우르며 인간과 인간의 화해, 도시와 자연의 화해, 인간과 사물의 화해,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작품으로 내면화시켜 나만의 브랜드를 진화시켜 표현하려 한다.

직선과 곡선의 만남, 인종과 인종의 만남, 문명과 문명의 만남, 이념과 이념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꿈꾼다. 현대도시의 대중들에게 서로를 구속하는 칸막이 속 깊은 단절, 무관



‘트랜스휴먼-원형에 대한 사유’

심, 고독, 소외 속에서 자연과의 소통과 교감으로 대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삶의 위안을 주고 싶다.

2023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 공모

광주문화재단, 내년 1월9일부터 19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023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합 공모하고, 공모 및 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지원규모는 24억여원으로 237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든 민간 예술단체 및 예술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공 공연장 접수 제외)

공모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전 장르를 지원한다. 단체 및 개인 예술인 등 총 18억4천만원 22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1억4천5백만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2억6천만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

문화제작지원사업 1억7천만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1억6천5백만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규모와 장르적 특성 등을 감안, 집중지원 사업에 한해 예산심의로 자동지원한다.

이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공공 공연장과 1대1 협약을 해야 신청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재단에서 선발한 후 공연장과 매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내년 1월9일부터 19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참고. /최명진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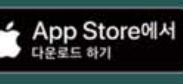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